

Miles Davis의 NARDIS 작품 분석

김형준*
*계명대학교 뮤직프로덕션과
e-mail: jazzia@hanmail.net

A Study on Miles Davis's NARDIS

Hyeong-June Kim*
*Music Production, KEIMUNG University

요 약

본 논문에서는 Jazz의 역사에 큰 영향력을 준 Miles Davis의 작품 중에서 Nardis의 화성을 분석하였다. Phrygian Mode의 활용과 E Minor Key의 Tonality와 C Major Key의 Tonality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. 멜로디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

1. 서론

현대 Jazz의 거장들 중 한명인 Miles Davis는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화성에서 발전된 형로 그의 음악적 표현들을 구체화 시켰다. 그의 앨범 중에 하나인 Kind Of Blue의 So What이란 작품에서 Mode의 기법을 처음 사용하였고 본 논문의 분석 작품인 Nardis에서도 Phrygian Mode의 활용과 더불어 Minor Scale과 Major Scale의 Tonality가 나타나고 있다.

2. 본론

2-1 Nardis의 Song Form

Nardis의 Song Form은 전통적인 A-A-B-A로 구성되어 있다. 많은 Jazz곡에서 나타나지는 형식으로 대표적인 구성이다. [그림 1]에서 보듯이 A와 B 모두 8마디씩 총 32마디로 구성되어 있다. A에서 주제부가 나타나고 다시 A가 반복된다. B는 후렴부로 A와는 차별화된 멜로디와 화성 진행이 나타난다. 그러나 Nardis에서는 B부분에서 큰 변화보다는 A부분과의 관계는 이어 나가는 화성 진행을 나타내고 있다. 본 논문 화성 분석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.



[그림 1] Nardis의 Song Form

2-2 Nardis의 A부분 화성 분석

Nardis는 E Minor Key로 구성 되어있다. [그림 2]에서 보듯이 V7인 B7이 나타나서 E Minor의 조

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. 그러나 두 번째 마디의 bII Maj7인 FMaj7 은 E Phrygian Mode에서의 Cadence 코드로 E Phrygian Mode가 부분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. 또한 7번째 마디의 EMaj7 코드는 I Maj7로 E Minor Key에서 E Major Key의 화성이 나타났다. 이는 Modal Interchange로 A부분의 8마디에서 E Minor 조성에서 E Phrygian, E Major의 Modal Interchange까지 한 번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.

[그림 2]에서 FMaj7에서 EMaj7으로 이어지는 진행은 Spanish Phrygian의 화성진행으로 Phrygian Mode의 bII Major - I m의 변형인 bII Maj7 - I Maj7이다. 본 논문 서두에 Modal Interchange의 관점에서 보았지만 Spanish Phrygian의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.

[그림 2] Nardis의 A부분

2-3 Nardis의 A부분 선율 분석

[그림 2]의 두 번째 마디의 멜로디에서 D#에서 E로의 해결은 Leading Tone의 기능으로 Harmonic Minor Scale이다. Jazz기법중 하나인 Approach Note로도 볼 수 있으나 Harmonic Minor Scale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. 다음 마디의 코드가 B7이 나타나기 때문이다. 화성 진행은 FMaj7로 Phrygian Mode의 bII Major이다. 7마디의 EMaj7에서 나타난 선율인 F는 Phrygian Mode의 특징 음이다.

2-4 Nardis의 B부분 화성 분석

[그림 3] Nardis의 B부분

[그림 3]의 B부분의 1~4마디는 E Phrygian Mode의 Linking Chord와 Cadence Chord의 반복이다. B부분의 5~8마디는 C Major Scale의 II-V-I인 Dm7-G7-CMaj7의 화성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. 마지막 마디의 FMaj7은 C Key의 IVMaj7이면서 A부분 처음 시작의 Em의 Phrygian Mode의 bII Maj7인 Cadence Chord로 B부분과 A부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.

2-5 Nardis의 B부분 선율 분석

B부분의 1~4마디는 Linking Chord인 Am7의 구성음 A-C-E-G중에서 E는 E Phrygian의 Tonic으로 다음 코드의 FMaj7과 E-F-E-F의 음 진행을 가져올 수 있다. 즉, Linking Chord지만 Tonic Chord의 역할도 가능하다. 첫 번째 마디에서의 선율은 CMaj7 코드의 구성음인 C-E-G-B로 C Major Scale의 Tonality로 바뀔을 예상 할 수 있다.

B 부분의 선율적인 특징은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1~4마디는 CMaj7의 코드 구성 음으로 5~8마디는 C Major Scale로 구성되어 있다.

[표 1] Nardis의 Scale의 변화

A 부분			B 부분		
Em FMaj7	B7	FM-EM	Am7 FMaj7	Dm7 G7 CMaj7	FMaj7
E Phry.	E Har.	E Spanish Phry	E Phry.	C Major Scale	b II Maj7 Em로의 연결 역할

[표 1]에서 보듯이 A부분에서 E Phrygian Mode와 E Harmonic Minor Scale, E Spanish Phrygian Mode가 나타나고 있다. B부분에서는 E Phrygian Mode와 C Major Scale이 나타나고 있다.

3. 결론

본 논문에서 논자는 Miles Davis의 작품 중에서 Nardis를 Song Form과 선율, 화성을 분석 하였다. Mode를 중심으로 Tonality를 연결시킴으로 선법 음악과 조성음악이 유기적으로 사용됨을 알았다. 본론에서 밝혔듯이 A 부분에서는 E Phrygian Mode를 중심으로 E Harmonic Minor의 V7이 나타나서 조성 음악으로 바뀌었다가 E Spanish Phrygian Mode로 바뀜을 알았다. B부분에서는 E Phrygian Mode와 C Major Scale이 나타남을 알았다.

선율의 움직임은 각각의 E Phrygian Mode의 특징과 E Harmonic Minor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 화성의 움직임도 E Phrygian Mode과 E Harmonic Minor뿐만 아니라 E Spanish Phrygian Mode와 C Major Scale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.

참고문헌

- [1] Wolf Marshall's "The Jazz Theory Book"
(SHER MUSIC CO. 1995)
- [2] The Jazz Theory Book By Mark Levine